



ETH Zürich 교환 보고서



2025학년도 1학기에 GLP 교환학생으로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ETH Zürich)에 다녀온 기계공학부 오승석입니다. 우선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공과대학, 교환 전반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국제협력실 김희선 선생님, 그리고 공과대학 동창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위스에서 6개월은 저에게 큰 도전이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ETHZ의 QS 랭킹을 보고 지원했고 그에 걸맞는 수준의 수업을 듣고 인재들과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 오히려 6개월 타지생활을 하며 학업 외로 보고 느낀 것들이 많았습니다. 졸업을 미루고 다녀와야 했던 GLP 교환학생이었지만 후회없는 선택이었고, 혹시 지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임 없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업

Intensive German Course A1.1

UZH Sprechen Zentrum에서 제공하는, 개강 전 2주간 간단한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다른 교환 후기에서도 좋은 평가가 많아서 저 또한 수강했는데, 수강하지 않았다면 크게 후회할 뻔 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같은 학기에 교환을 온 교환학생들이 대부분인 만큼 낯선 땅에서 친구를 사귀기에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3D Vision (5 ECTS)

컴퓨터공학부 D-INFK 석사 수업입니다. Computer Vision에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 수업을 진행하지만 지필 평가가 없어서, 사실상 팀 프로젝트가 메인인 수업입니다. 4명씩 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Computer Vision 관련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한 학기 동안 그 주제와 관련해서 리서치를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주제도 어렵고 협업

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supervising를 맡아준 Computer Vision Group(CVG)의 박사과정에게 많이 배울 수 있어 의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Autonomous Mobile Robots (5 ECTS)

기계공학부 D-MAVT 수업입니다. Mobile Robot에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 (Localization, Filtering, Path planning 등)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는 수업입니다. 강의 내용도 물론 재미있었지만 ETH Autonomous Systems Lab의 지도교수이신 Roland Siegwart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Computational Control (6 ECTS)

전기정보공학부 D-ITET 수업입니다. MPC, Data-Driven Control, Reinforcement Learning 등 제어 방법들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 내용들을 toy example에 구현해보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mple은 매 년 달라진다고 하는데 제가 수강했을 때는 시내 교통상황 모델을 이용해 교통량을 제어하는 주제였습니다. 고전제어를 선이수했다면 최근 어떤 제어 기법들이 사용되는지 흥미롭게 들어볼만한 수업이었습니다.

5 Credit Semester Project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점을 받을 수 있는 (UROP와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D-INFK의 Computer Vision Group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Postdoc 연구원과 매 주 화상회의를 하고 supervising을 받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부분 Semester Project는 강요하는 사람이 없고 자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고 얻어갈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생활

- 저는 WOKO를 통해 Culmannstrasse 26 기숙사에 배정받아 6개월간 거주했습니다. 다른 교환학생 후기에 Meierwiessenstrasse 62 기숙사에 대한 후기가 많아서, 처음에 WOKO에 기숙사 신청을 넣을 때 ETH와 가까운 Culman이나 Sonneg를 원한다고 코멘트를 작성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Culman과 다른 기숙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주 학생의 25%만 교환학생이고, 나머지 75%는 ETH나 UZH에서 공부하는 학사/석사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숙사 체계가 잘 잡혀있고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반대로 이미 몇 년 씩이나 같이 지내며 친해진 커뮤니티에 녹아들기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Zentrum 캠퍼스와 걸어서 10분, Zürich HB에서 트램 10분 거리인 점은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 봄 학기(2월-8월)의 경우 WOKO와 기숙사 계약을 할 때 거주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험까지 모두 끝나는 8월까지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수업이 끝나는 6월까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8월까지 계약했으나 생각보다 일찍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월세가 만만치 않은 나라이다 보니 일찍 귀국하는 옵션도 좋아 보입니다.

사소한 팁

- 수강신청 시에 전체 학점의 2/3 이상은 소속 학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2/3 Rule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 계획 허가를 받을 때만 문제가 되며, 이후 수업을 드랍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시험은 수강신청과 별개로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라, 수강 이후에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 Semester Project를 수강하고 싶으시다면, 연구실 컨택은 이르면 이룰수록 좋습니다. 신청 메일을 보낸다고 다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답장해준다고 해서 project를 꼭 진행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Scaramuzza 교수의 Robotics & Perception Group과 interview 이후에 반응이 긍정적이라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학기 시작 직전에 프로젝트는 어렵다는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연구실과 동시에 컨택하면서 미리 연구실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Semester Project는 연구실이 속해있는 단과대학(D-MAVT, D-INFK 등)을 기준으로 2/3 Rule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타 단과대 연구실에서는 높은 credit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 스위스 생활 물가가 비싸다 보니, 아무리 절제하고 아껴도 한국보다 생활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교환 학기 시작 전에 장학금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국내 장학금도 있지만 Die Heyning-Roelli 등 스위스 내에서 교환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Night GA 1년권을 구매하면 저녁 7시 이후, 새벽 5시 이전(주말은 아침 7시)에 스위스 내 모든 교통이 무료가 됩니다. 때문에 기차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7시에 취리히 중앙역에서 출발하는 아무 기차를 타고 밤 늦게 돌아오는걸 좋아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어떤 루트를 타던 무관하게 멋진 해질녘 뷰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마치며

교환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연구실에 다니며 연구 실적을 쌓는 사람, 유럽 방방곳곳 여행을 다니는 사람, 외국인 친구들과 매일같이 놀고 교류하는 사람 등.. 어떠한 방식으로 6개월을 보내던 인생에서 기억될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환을 떠나는 이유를, 교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학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경험하게 해주신 공과대학 국제협력실과 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